우암학원 창학66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All New ES 300h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208호 1판 (음력 2월 16일)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친노 패권에 지도력 '흔들'
김종인 대표 상처뿐인 승리

뉴스분석
더민주 '비례 파동'이 남긴 것

金, 명예·장악력 잃어
친문은 대거 당선권에
총선 후 2라운드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23일 비례대표 2번을 다시 받아들고 당무에 복귀했다. 김 대표의 셀프 비례대표 공천과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선정을 둘러싸고 촉발된 더민주의 갈등이 사흘만에 봉합된 셈이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이번 비례대표 공천 파동은 더민주의 내부 역학구도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겉으로는 김 대표가 사퇴론을 흘리며 더민주 지도부를 압박, 비례대표 2번을 받아내고 다시 당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비대위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등 김 대표의 심기를 건드린데 대해 석고대죄를 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 만나 설득을 거듭한 끝에 그의 당무복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더민주의 당내 패권주의에 김 대표가 크게 당한 것으로 읽힌다. 당장, 비례대표 14번으로 밀렸다가 2번을 다시 받고 당무에 복귀한 김 대표는 스타일이 크게 구겨졌다. 자초한 측면이 크지만 노욕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더민주 비대위원장을 맡아 공천 칼날을 휘두르며 구축했던 그의 정치적 입지가 사실상 붕괴된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김 대표는 중앙위에서 비례후보 명단 확정이 무산된 것과 관련, "친노 진영이 숨죽이고 있더니 공천장을 받고 나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냐"며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내뱉은 말도 의미심장하다. 그는 "(비례대표 2번 배치는) 당을 끌고 가기 위해 필요해 선택했던 것"이라며 "당을 떠남과 동시에 비례대표 의원직 자체를 던질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상황이 정리된 뒤 탈당과 함께 비례대표를 내놓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당내 주류세력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번 비례대표 공천 파동 속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정치적 실익을 톡톡히 챙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당선권에 대거 포진했기 때문이다. 7번 문미옥 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8번 이철희 당 전략기획본부장, 11번 권미혁 당 뉴파티위원장, 15번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는 모두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이다. 6번 김현권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9번인 제윤경 주빌리은행 대표, 13번 정춘숙 전 한국 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도 친문 인사로 꼽힌다.

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당의 체질 개선을 명목으로 전문직 중 다수를 당선권에 배치했지만, 중앙위 파동을 거치면서 다수 인사들은 당선권에서 멀어지거나 아예 제외됐다. 김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비례대표 공천 파동으로 게(명예)도 잃고 구럭(당 장악력)도 잃은 셈이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는 총선 후보 및 비례대표 공천에서 친문 인사들이 대거 포진되면서 당내 입지는 물론 차기 대선 도전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이번 비례대표 공천 파동은 오너와 영입 사장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더민주의 패권주의 청산을 바랐던 호남 민심에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이같은 주도권 갈등이 총선 이후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무등산 유네스코 지질공원 실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선정위원 등이 23일 광주 무등산 입석대와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하고 있다. 실사단은 광주시가 무등산권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날부터 이틀 동안 무등산 일대에서 현장조사를 벌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상무소각장 폐쇄 후 대책 마련 '비상'

민자유치 무산 … 광주시청 등 27개 공공기관 대체 열원 확보 어려움

재정사정이 열악한 광주시가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 대체열원(熱源) 확보에 수십억원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등 재정부담을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연말께 남구 양과동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가동에 맞춰 서구 상무소각장을 전면 폐쇄한다. 이 소각장은 1일 320t에 달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 처리해왔다.

문제는 소각장에서 나온 열을 이용, 냉난방을 했던 광주시청, 한국은행 등 주변 27개 공공기관의 대체열원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광주시는 LNG를 이용,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연료전지사업을 대체열원으로 구상하고 민자유치에 나섰으나 지난해 말 무산됐다.

광주시는 현재 다른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 하고 있다. 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광주시는 대체열원으로 기존 소각장 내 열원 공급 및 운영업체인 한국CES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LNG 보일러를 추가로 가동해야 하는 등 연간 23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연료전지 건설사업이 최소 착공 뒤 1년 이상 소요되고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와의 사업추진도 원활히 진행될 지 의문이어서 임시방편 기간이 더 늘어날 우려가 크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혼탁·과열 치닫는 총선…광주·전남 선관위 49건 적발

검찰, 강운태 전 시장 구속

'선택 4·13' 총선 D-20

4·13 총선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혼탁·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23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3 총선을 21일 앞둔 이날 현재 비방·흑색선전·향응 등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경고조치 등을 받은 건수는 모두 49건이다. 조치 유형별로는 ▲고발 8건 ▲수사의뢰 1건 ▲경고 39건 ▲이첩 1건 등이다.

광주 동남갑 선거구에 출마한 강운태 전 광주시장과 남구 모 산악회의 회장, 조직총괄, 채무총괄, 자문단장 등 5명은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산악회 관광 행사를 개최하면서 회비보다 많은 경비를 지출하고,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600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강 전 시장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A선거구 캠프 관계자 B씨는 모 아파트 유권자들에게 참기름을 나눠줬다는 의혹이 담긴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자신의 유투브에 올린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됐다. 전남 C선거구 현역의원 보좌관 D씨는 허위학력을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대량 배부한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오늘·내일 이틀간 20대 총선 후보등록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투표 호소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4~25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간다.

여야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국회의석 300석을 놓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게 된다. 광주(8석)와 전남(10석)에서도 18석을 놓고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야권의 텃밭인 광주와 전남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후보들의 접전이 예상된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4~25일 양일간 제20대 총선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는다.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에 각 정당 후보자들과 예비후보 등록 기준 무소속 후보들을 감안하면 최고 93명의 후보가 등록할 것으로 보여 평균 5.16대 1의 경쟁률이 예상된다. 광주는 8개 선거구에 42~43명 가량이 후보자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이며, 전남은 10개 선거구에 50명이 등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날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31일부터 할 수 있으며,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는 4월13일 치러지며, 선거운동은 12일까지다. 사전투표는 4월8일과 9일 이틀간 이뤄진다.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그 힘의 근원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에 있다"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

메르세데스 - 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 200 1,991cc, 1,635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2.0km/ℓ(도심연비 10.5km/ℓ, 고속도로연비 14.6km/ℓ), 3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45g/km • E 250 BlueTEC 4MATIC 2,143cc, 1,935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4.1km/ℓ(도심연비 12.4km/ℓ, 고속도로연비 17.0km/ℓ), 2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40g/km • E 300 3,498cc, 1,790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9.7km/ℓ(도심연비 8.4km/ℓ, 고속도로연비 11.9km/ℓ),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83g/km • E 300 4MATIC 3,498cc, 1,860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9.1km/ℓ(도심연비 8.0km/ℓ, 고속도로연비 10.9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99g/km • E 350 BlueTEC 4MATIC 2,987cc, 2,045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2.6km/ℓ(도심연비 11.2km/ℓ, 고속도로연비 14.7km/ℓ), 3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58g/km • E 400 4MATIC 2,996cc, 1,935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9.3km/ℓ(도심연비 8.1km/ℓ, 고속도로연비 11.5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90g/km • E 63 AMG 4MATIC 5,461cc, 2,02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6km/ℓ(도심연비 6.5km/ℓ, 고속도로연비 9.3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38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임으로 도로상태, 운전취향, 차량작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